< 실용화법 후 소감 >

실용화법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배우는 것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정말 힘든 수업이었었던 얻은 것 또한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화법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만 성장 한 것이 아닌 친구들과의 협동,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화법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
전 제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발표 또한 못할 것 같다고 혼자 계속 생각했었습니다. 그래서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적이나 잘 받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. 하지만 시험 공부도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았고 외울 것이 너무 많아서 속으로 너무 막막했습니다. 하지만 성적 확인 후 정말 잘 나온 점수에 나 자신이 뿌듯해 지면서 점점 발표 준비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점차 해갔습니다.

그 후로 개인 발표 대본을 짜고 이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. 우선 대본을 몽땅 외우고 실전처럼 혼자 말해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앞에 진짜로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떨리고 나 자신이 초라해 지는 것 같았습니다.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. 내 대본은 다른 친구들 보다 누가 봐도 긴 분량이었고 나보다 짧은 대본을 가진 친구가 3분을 훌쩍 넘겼다고 말하니 불안감은 전보다 더 증가 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쫄면 남자가 가오가 있지 뭔가 멋있지 않을 거 같았습니다. 까짓 거 될 때 까지 연습해서 누가 봐도 입이 탁 벌어지는 발표를 해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실제 발표 당일 예상보다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한 탓인지 떨리지 않았고 너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발표를 끝내고 다른 친구들 발표를 들으며 발표 할 때 이 행동은 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. 아니나 다를 까 이렇게 다 생각했던 부분을 교수님께서 모든 발표가 마친 후에 지적해 주셔서 뭔가 서운하면서도 납득이 가서 정말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이를 100%받아 들여서 조별 발표는 더욱 잘 하면 뭔가 더 뿌듯할거 같고 더욱 좋은 이미지를 교수님께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

그래서 조별 발표 공지가 떴을 때 부터 팀원을 저는 꾸렸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되면 동시에 클릭해서 친한 친구들 끼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먼저 팀을 꾸린 이유는 아무래도 편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끼리 준비하면서 더욱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정말 발표 준비는 다른 팀보다 10배는 빨리 준비될 수 있었고 시간을 다른 팀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 조별 발표는 개인 발표와는 다른 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. Ppt도 만들어야 했고 대본도 너무 길어서 외우는 것은 단 기간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키워드만 작성 된 대본을 작성하였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우리 팀원들이 모두 다 발표에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첫번쨰 순서로 하다 보니 너무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발표 전부터 사전 연습을 팀과 수십 번 해보며 완성도를 높여 나갔습니다.

조별 발표 때에는 빨리 일어나서 키워드를 복기하고 동선을 생각하고 미리 강의실에 팀원들과 와서 실제로 연습 또한 해보았습니다. 정말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저희 조가 실용화법 첫 번째 발표였는데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자 마자 바로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세상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한 탓인지 진짜 너무 성공적으로 내 파트를 마무리 했고 팀원 또한 저 못지 않은 발표를 꾸려나가 주었습니다. 발표를 마치니 뭔가 몸에 힘이 확 빠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우리 조 발표가 모두 마친 뒤 교수님께서는 극찬을 해주셨습니다. 첫번째로 발표하는 팀 중에 이렇게 잘한 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.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. 정말 발표라는 사소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누구보다 발표에 자신감이 없던 내가 이렇게 까지 해 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

이 조별 발표 후에도 다양한 강의의 발표가 남아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발표를 마치고 나니 다른 발표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서 진짜 자신감이 전보다 붙을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처럼 실용화법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내 대학 생활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되었습니다. 또한 교수님 께서는 발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. 이러한 사소한 팁 하나하나가 내 생활 속에 익혀지면서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실용화법은 내년에도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명 강의라고 생각합니다.